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0월 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4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제가 난임의 어려움을 이기고 다둥이 엄마가 되기까지 위로와 힘을 주시고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노 희 은 -

저는 몇 년간 난임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딸을 양육하는 중에 딸을 위해서도 둘째를 낳으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도 매우 어렵게 가졌기에 처음엔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거듭하여 듣다 보니 점점 제 마음속에 둘째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둘째를 갖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위 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임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에 첫 아이를 갖기 전, 목사님이 심방을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엘리 제사장을 만나 축복의 말을 들은 후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보게 해주신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기도응답을 확신하였기에 그 뒤로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다고 하였고,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말고도 여러 자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날처럼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께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저는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 자궁경부가 약해서 임신기간 동안 조심하며 지내다가 한 달이나 빨리 아기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보다 더 조심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급하게 119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쌍둥이 중 첫째아이(선둥이)의 양수가 터져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지금으로서는 선둥이는 포기하고 둘째아이(후둥이)를 조금이라도 더 엄마 뱃속에서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양수가 터지고 5일쯤 되자 처음에는 거의 없던 진통이 갈수록 그 횟수가 늘고 정도가 심해져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선둥이를 낳아야 할 것 같다면, 그런데 아기가 제 뱃속에 있는 ‘재태주수’가 약 25주로 너무 어려서 세상에 나와도 폐가 퍼지지 않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둥이는 조금이라도 더 엄마 뱃속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선둥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궁에서 후둥이도 내보내려고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응급으로 출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둥이 출산에 경험이 많은 대형 병원으로 저를 전원시켜 주셨습니다.

웁진 병원에서 저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두 아이를 모두 출산하였습니다. 출산하자마자 너무 어려 울음 소리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출산한 후에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진통이 사라져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혹시 중환자실에서 선둥이가 잘못됐다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듣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아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적인 발육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저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아이들과 떨어져 집에서 모유를 모아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져가 전달하고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주일 새벽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후둥이가 태변이 나오지 않아 장 괴사가 의심되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마취가 안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투여하면서 하는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후 몇 달은 장루 주머니를 달고 있어야 하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그저 눈물만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생명을 책임져 주세요!” 이 말만 마음속으로 되뇌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끝났고, 6개월 후에 장루를 제거하고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후둥이가 퇴원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양수가 터졌을 때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했던 선둥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먼저 퇴원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이 쌍둥이 아이들이 지금 36개월이 지나 첫째와 함께 유치부에서 예배 드리며 교회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구가 작지만 크게 아픈 일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쌍둥이들이 특별한 재활치료를 받지 않고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제가 깊이 의지하며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서 41:10)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2~3) 아멘!

저는 그 힘들고 두려웠던 시간에 지금 내가 겪는 일들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이실 크고 비밀한 일의 과정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뎌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은혜와진리교회 울전성전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금요일예배 기도시간에 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각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쌍둥이들이 교회에 가면 성도님들이 그 존재만으로도 다들 감격하시고 예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난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아이 셋을 둔 다둥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낳은 아이들 모두 잘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꼭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저의 세 아이가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장차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17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 본문 : 마태복음 8:23-27
- 요절 :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마 8:27)
- 찬송 : 340장(새찬송가 542장), 344장(새찬송가 545장)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신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복음서에 기록된 유명한 3가지 기적에 관하여 상고해 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일이었습니다(요 2:1-11).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는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객이 왔으나 봅니다. 요즘 같이 쉽사리 가까운 가게에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심히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당황한 주인은 그러한 중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아 계시던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림으로 해결받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사정을 고하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잔칫집의 형편을 말하고 기적을 베풀어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때가 되매 하인들에게 그곳에 있던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였고,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가득하게 갖다 부으니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맛이 뛰어난에 놀랐습니다.

이리하여 혼인 잔칫집의 난처한 문제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었고 잔치는 즐겁게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신혼 가정에서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혼인 잔칫집에서 포도주의 부족함을 채워 주심으로 낭패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히 증거되어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면이 낮고 주위에는 높은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때때로 기온의 변화로 인하여 생긴 기압의 변동으로 갑작스런 돌풍이 일어 바다를 온통 뒤흔드는 풍랑을 일으키곤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8:26) 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로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순종케 하는 것은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풍랑이 일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두려워 떨다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만드시니 그제서야 놀라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줍니다.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배에 모신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3.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마 14:15-21)

한번은 예수님께서 빈 들에 계실 때에 큰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던 중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빈 들인지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끼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을 시켜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남자 어른만 오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이만명의 사람들이 먹었으며 남은 것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기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기적들은, 모두가 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확실히 실제로 있었던 것들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천 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지금도 능력과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